

서울대, 자녀 공동등재 등 논문비리에도 '솜방망이' 처벌

징계시효 지나 '경고·주의' 뿐
검증대상 논문 중 34% '연구부정'
교육부 감사, 보여주기식 그쳐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자녀 논문 공동등재 등 연구부정 검증 사례가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에 부딪혀 징계가 '경고·주의'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연구부정이 드러난 서울대 교수는 최근 5년간 총 19명으로 전국 국립대학 중 가장 많았다. 전국 국립대학으로 범위를 넓히면 52명으로, 10명 중 4명이 서울대 소속 교수에 속하는 셈이다.

◆서울대 검증대상 논문 64건 가운데 22건이 '연구부정'

교육부의 대학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논문의 연구부정 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대 검증대상 논문 64건 가운데 22건(34%)이 무더기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연구부정 논문이 가장 많은 단과대학은 의과대학으로 22건 중 9건(41%)였으며, 수의과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학 1건, 자연과학대학 4건, 농업생명과학대학 1건, 사회과학대학 1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서울대



최근 한 간담회에 참석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왼쪽).

/뉴스시스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들은 서울대 교수 자신의 자녀(4건)이거나 동료 서울대 교수의 자녀(5건) 혹은 지인의 자녀였다. 이들은 특별한 인적 관계라는 지위에서 서울대 교수 및 박사급 연구인력의 전문적 지도와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대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교수들은 연구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은 자신의 자녀를 본인 논문에 공저자로 올리거나, 동료 교수에게 부탁하거나, 혹은 친인척·지인의 자녀를 올려주는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셈

이다.

미성년자들은 고등학교 과학동아리 활동, 고등학교 탐구과제,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직접 실험을 수행하고 싶어서와 같은 이유로 연구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지만, 위원회 판단을 보면 미성년자들은 실험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그 역할이 단순한 실험 보조 및 데이터 정리·수집, 영문 교정 수준에 그쳤다.

서동용 의원이 전국 40개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립대학에서만 45건의 연구부정 논문이 발견됐고, 서울대는 이 중 22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한다.

서동용 의원은 "연구윤리를 외면한 것은 교수들이지만, 개인의 책임을 떠나 대학이 소속 교원과 연구윤리 관리에 책무성을 더 가져야 한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는 물론 국가연구과제참여 제한 조치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개정…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철저 감시 이어갈 것'

문제는 교수들은 연구부정 등을 저지르고도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주의·경고에 그쳤다는 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만안)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자체종결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교수 52명과 조교 1명이 자체종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와 경북대가 각각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위 내용으로는 ▲채용비리 ▲연구윤리 위반 ▲미투 가해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많았다.

특히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에 대한 사후조치는 경고 10명, 주의 3명이 전부였다.

교육부 감사로 대학 문제가 드러나도 실효성이 없었다. '최근 5년간 교육부의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대상 감사 시행 결과,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처분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경고 처분된 경우가 43건에 달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감사가 '보여주기식'에 그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현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2018년 성비위의 경우, 징계시효는 10년으로 개정됐으며 지난해 12월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개정됐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의 연구비리 비율이 타 대학 대비 높은 이유는 그만큼 학내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조사해 부적절 사항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며 "연구비리가 드러나더라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그간 '경고'에 그쳤지만, 징계시효가 10년으로 개정된만큼 앞으로 더욱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런'서 수험생 메타버스 입시설명회 연다 세계 AI 석학 한자리... 중앙대 학술대회 성료

전·현직 교사와 입시전문가 상담
수험생 궁금증 실시간 답변 진행

서울시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학습 사이트 '서울런'에서 입시설명회와 일대일 상담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1월 말 전·현직 교사와 입시전문가가 대학별 정시 전략을 설명해주고 학생들의 궁금증을 실시간 답변해주는 '메타버스 입시설명회'가 열린다.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온·오프라인 일대일 정시 컨설팅'은 수능을 응시한 서울런 회원 중 90명에게 지원한다. 진도율과 접속률이 우수한 학습자 30명은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센터를 통해, 나머지 60명은 개별



메타버스 입시설명회 예시

/서울시

신청을 하면 서울진학지도협의회에 등록된 전·현직 교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일대일 컨설팅을 받지 못한 서울런 회원들에게 '합격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런과 연계된 입시 교육

업체 유웨이의 서비스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수능 점수와 내신 점수를 입력하면 추천대학, 대학별 합격 예측이 담긴 리포트를 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10개국 27명의 석학 참여

중앙대학교는 인문콘텐츠연구소HK + 인공지능인문학사업단과 인공지능인문학 국제학술대회(ICAIH) 조직위원회가 지난 2일 '지능형 에이전트와 인공지능이 함께하는 미래'를 주제로 '제4회 인공지능인문학 국제학술대회(ICAIH 2021)'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2018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ICAIH는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인문학 분야 국제학술대회다. 매년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 철학·언어학·수

학·공학·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학술정보를 교류한다. 올해 대회의 세부 주제는 '지능형 에이전트와 인공지능이 함께하는 미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10개국 27명의 석학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비 윌시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대 교수의 'AI 및 윤리: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야?', 토루 이시다 일본 와세다대 교수의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인류 연구를 위한 또 다른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6개 세션, 22개 실시간 온라인 학술발표가 진행됐다.

/이현진 기자

한신대-화성시, '민주시민강좌' 개강

매주 화요일 화상회의 프로그램

한신대학교가 수탁·운영하고 화성시가 지원하는 '화성시 민주시민센터'가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와 협력해 오는 19일 '2021 제2기 민주시민강좌'(이하 민주시민강좌)를 개강한다.

14일 한신대에 따르면 '민주시민강좌'는 송주명 센터장(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이 사회를 맡고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의 교수진이 전문 분야별로 강의를 펼친다. 수강자들은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강의 시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번 강좌 주제는 '새로운 대한민국, 시민이 만드는 미래 경제와 정치'다.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시작해 1시간 30분 가량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2기 강좌에서는 이전 강좌 내용을 총괄하고 특히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정체성과 능력을 중심으로 6회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김선현 오토그룹 회장 성신여대에 1.5억 기부

성신여대학교는 동문인 김선현 오토그룹 회장이 대학 발전기금 1억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장학기금과 성신여대 기숙사 성미료 리모델링에 사용될 계획이다.

성신여대는 김 동문의 뜻을 반영해 2022학년도부터 독립운동 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우수 장학생 약 5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원광디지털대, 라오스 직업학교와 MOU

학술교류·공동연구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지난 8일 라오스 삼동백천기술직업학교와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삼동백천기술직업학교는 2020년 라오스 씨양쿠앙 주 폰사반에 설립된 기관으로, 청소년 직업교육을 통해 자립심과 직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원광디지털대와 삼동백천기술직업학교는 ▲공동 관심분야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학술회의 개최 ▲단체협약 장학금 추진 ▲원광디지털대 학생의 해외봉사과견 및



김규열 원광디지털대 총장(왼쪽)과 라오스 삼동백천기술직업학교 관계자가 지난 8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원광디지털대

현장실습 시 국제행정 협력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22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일정 수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입학금 100% 지급과 수업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현진 기자